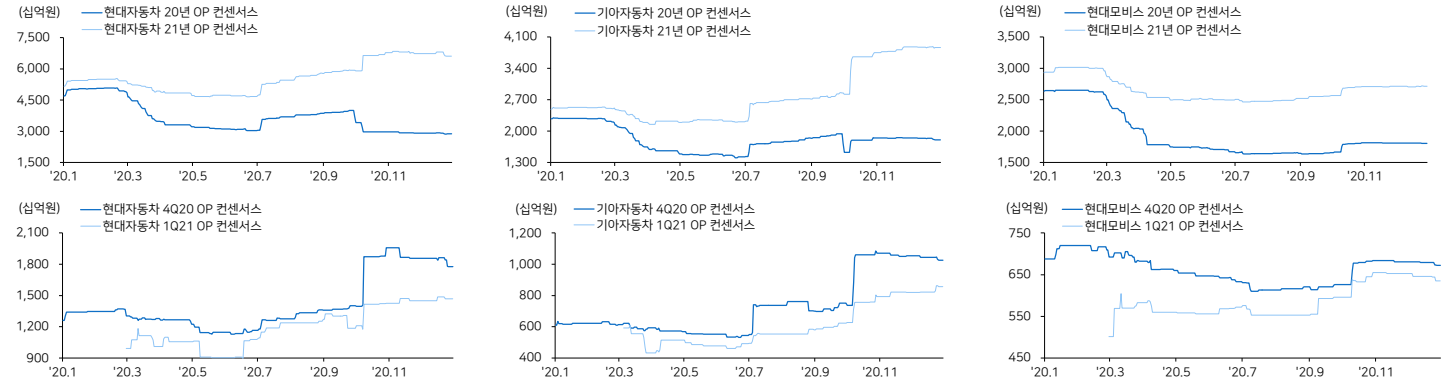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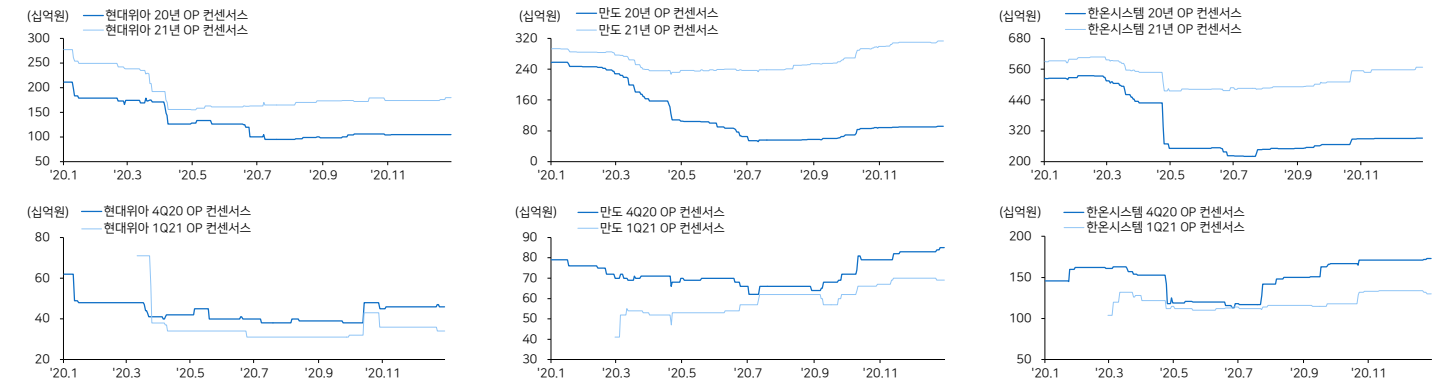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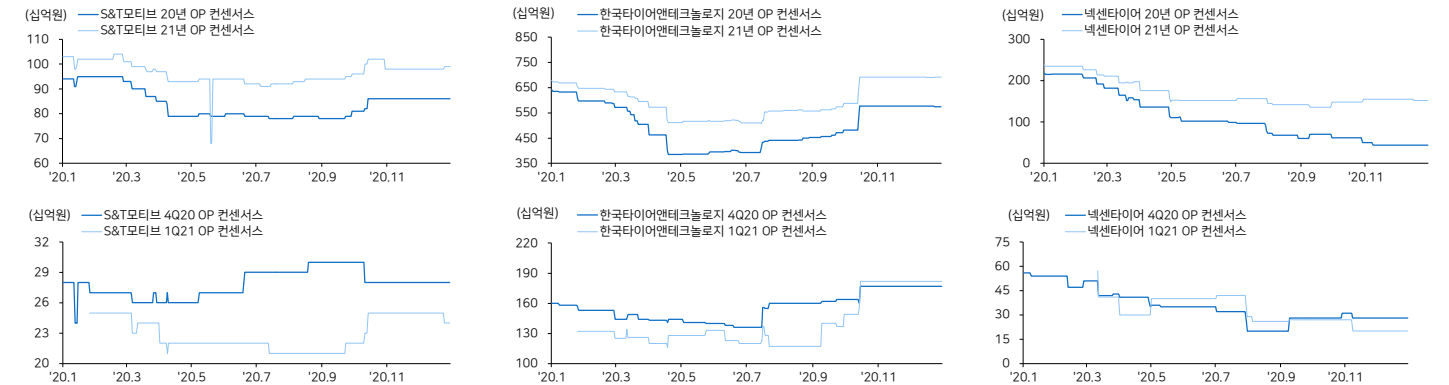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운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정의선 미래차 승부수 'E-GMP' 3월 본격 가동 (헤럴드경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인 그룸의 명운을 건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오는 3월 본격 양산에 들어감, 현대차그룹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팩과 파워트레인을 모두 직접 생산해 테슬라와 폭스바겐 등 글로벌 전기차 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계획.

<https://bit.ly/3iAktEU>

애플카 생산설에...기아차, 9년 만에 8만원 넘었다 (한국경제)

기아차 주가가 '12년 이후 약 9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 탄탄한 신차 라인업과 미래 성장성, 좋은 실적에 '애플카' 생산 기대감이 겹쳤다. 주가가 급등한 가장 큰 이유는 애플카 생산설 때문.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나뉘며 애플의 생산 파트너로 기아가 급부상.

<https://bit.ly/3c0CX5x>

현대차, 스위스 수소 합작법인 '에너지 효율 모빌리티' 수상 (디지털타임스)

현대 하이브리드엔 모빌리티(HHM)가 스위스 '워트 도르(Watt d'Or) 2021' 에너지 효율 모빌리티 부문에 수상. 워트 도르는 스위스 연방 에너지청이 2007년부터 에너지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낸 개인과 단체에 매년 수여하는 상.

<https://bit.ly/35YSH8>

현대차가 쓰아올린 UAM...글로벌 메이커 '경쟁의 서막' 열렸다 (블로터)

GM과 FCA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1'에서 전기차·자율주행차, 그리고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UAM(도심형 항공모빌리티)을 미래차 전략으로 제시. 단연 눈길을 끈 건 UAM.

<http://www.bloter.net/archives/5116636>

현대차·기아, 지난해 유럽시장서 처음으로 연간 점유율 7% 달성 (조선비즈)

19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작년엔 두 회사가 유럽에서 판매한 자동차는 총 84만1520대로, 전년 대비 21.0% 감소했다. 다만 판매 점유율은 7.0%로, 기존 최고치였던 2019년 6.7%보다 0.3%포인트 상승.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9/202101190281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더 이상 밀리면 끝'...현대차·기아, 중국 사업 전략 싹 바꾼다 (한국경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지난해 중국 판매량이 10여 년 전 수준으로 줄어든, 중국 진출 이후 사실상 최악의 성적표다. 현대차·기아는 '더 이상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 의식에 따라 올해 중국 사업의 전면 해선에 나서기로 함.

<https://bit.ly/3qySk8D>

현대모비스 신규 AS 시스템 역풍...제네시스 등 부품공급 차질 (조선비즈)

현대모비스가 이달 새로 도입한 시스템이 '역풍'이 되면서 전국 서비스센터 상당수가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음. 오늘 밀터나 에어 클리너 등 필수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제네시스·현대·기아 보유 소비자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음.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9/202101190052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동차 업체 GM의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 GM 산하 자율주행 업체인 크루즈는 MS로부터 20억달러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 이에 따라 크루즈의 기업가치는 300억달러로 불어남.

<https://bit.ly/3pcRZ1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